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딤후 1:1-2]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시는 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다.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원하시는 자들을 사도로 삼으셨다(막 3:13-1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은 복음의 중심적 내용을 드러낸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요 1:4).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요 11:25; 14:6). 그는 영생의 물을 주시며(요 4:14) 생명의 떡이시며(요 6:35, 48, 51) 영생을 주신다(요 10:28).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요 17:3)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요 3:16; 20:31).

첫 사람 아담의 범죄는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셨고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들을 위해 의를 이루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거기에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10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참 아들같이 여겨졌다(딤후 1:2). 영적 관계는 육적 관계보다 더 귀하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

곧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을 얻는다.

[3-5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밤낮 기도하는 중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는 디모데의 진실한 눈물을 생각하며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를 뵈으로써 그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였다. 디모데의 눈물은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증거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청년이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며 회개의 눈물이며 멸망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런 참 믿음이 있었고 그 동일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온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대에 경건하고 거룩한 어머니들이 많이 필요하다.

[6-8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심령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혹은 ‘신중함’] 마음이니, 심령임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NASB, NIV) **고난을 받으라**.

사도들의 인수는 특별한 은사를 동반했던 것 같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듯이(행 8:17),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것 같다. 디모데는 그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했다. 그 은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필요한 사명감과 열심과 충성심 등을 동반한 은사이었을 것이다.

디모데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았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며 특히 고난 중에 도우심을 보인다. 그러므로 디모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과 주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막 8:38). 주께서는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5:11-12).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 역사상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히 11:36-37),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본문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근거를 보인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가 창세 전에 은혜로 선택 하심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있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요한복음 1:14, 18,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 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아들](전통사본)이 나타내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16,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전통사본). 또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의 죽음과 부활로 입증되었다(요 1:29; 갈 1:4). 예수께서는 부활 하심으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고린도전서 15:20, 22,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이방인들의] (전통본문)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열매를 맺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반포자와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가 되었고 13권 내지 14권의 서신을 썼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를 읽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신학적으로, 신앙 사상으로 혼란할수록 우리는 사도들의 교훈인 신약성경을 더욱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 그는 영생의 물을 주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영생을 주신다.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리가 아니고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9절).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救贖)과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었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대제사장의 옷**

[출 28:1-5]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겹옷(소매 없는) 두루마기 겹옷(robe)(BDB, KJV, NASB)과 반포(斑布) 속옷(체크무늬의) 속옷(tunic)(BDB, NASB)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보라색)(BDB, KB)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이니라.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대제사장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의 영광과 그의 완전한 인성(人性)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 옷들을 만드는 금실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고,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 실은 그의 속죄사역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속죄의 구주이시다.

[6-14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출생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만들고 그 띠는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에봇은 조끼 같은 것이다. 에봇의 특이한 점은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에봇에 붙이고 거기에 호마노라는 보석 두 개를 금테에 물려 붙이는 것이다. 그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새겨야 하는데, 한 보석에 여섯 명씩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야 했다. 아론은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해야 했다. 에봇과 견대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같이 여기시는 것과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15-21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 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테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매 보석에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판결 흉패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며 거기에 네 줄로, 한 줄에 세 개씩 열두 개의 보석을 물리며, 그것들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새겨야 했다.

[22-29절] 정금으로 노끈처럼 띠는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띠는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띠는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에 달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뒷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흉패의 위의 두 끝에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 두 견대의 금테와 연결되게 하였다.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야 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같이 귀히 여기심을 보이며 또 보석의 다양한 색깔과 같이 그들이 각각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양함을 보인다. 또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배와 같이 가슴에 품으신다는 것도 예표한다.

[30절] 너는 우리와 뉘뉘를 판결 흉패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판결 흉패 안에 우리와 뉘뉘를 넣게 하셨다. ‘우리’는 ‘빛’이라는 뜻이고, ‘뉘뉘’은

‘완전함’이라는 뜻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던지는 알려지지 있지 않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아마 제비 같은 어떤 물건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론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우림과 둠뎀을 그의 가슴에 두어야 했다. 그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빛과 완전함을 사모해야 함을 보일 것이다. 아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분별력으로 이스라엘의 소송 사건들을 판결해야 했다.

[31-35절] 너는 에봇 받침 겂옷(두루마기 겂옷)

하나님께서서는 또 에봇 받침 두루마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겂옷’이라는 원어는 ‘두루마기 겂옷’(robe)을 가리킨다고 본다.

[36-39절]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패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셨다. 모세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야 했다. ‘반포 속옷’이라는 원어는 (‘체크무늬의) 속옷(tunic)’을 가리킨다고 본다(BDB, NASB).

[40-43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속옷’이라는 원어는 ‘반포 속옷’이라는 말과 같고, 그것은 (‘체크무늬의) 속옷’이라는 뜻이라고 본다(BDB, NASB).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베로 고의[반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아론과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이름답게 만들어야 하였다(2절). 대제사장의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신성(神性)의 영광이며 또한 그의 완전한 인성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14,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는 그의 신성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인성의 영광을 본받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고 아름다우심을 찬송하고 또 본받아야 한다.

둘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불렸고(2절)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패가 매어 있었고(36절) 또 제사장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41절).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인격과 사역을 나타낸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들도 제사장들(벤전 2:9)로서 거룩해야 한다(벤전 1:15).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대제사장의 견대에 있는 두 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아마 레위를 포함하여 열두 아들들의 이름들을 한쪽에 여섯 씩 새겨 넣었고(9절), 또 에봇 위에 걸치는 판결 흉패에는 한 줄에 세 개씩 네 줄, 즉 열두 개의 각종 보석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의 이름들이 한 보석에 한 이름씩 새겨졌다고 보인다(21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을 보석같이 여기시고 어깨에 메시고 가슴에 품으심을 상징하였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에 감추인 값비싼 보화같이(마 13:44), 극히 값진 진주같이(마 13:46) 여기셨다. 우리는 우리를 보석같이, 보화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 내가 자산(積山)에 강을 열리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상들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복과 화를 주지 못한다. 우상들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나 차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죽은 조상들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들도, 우상들도, 마리아도, 돈도 헛됨도 알아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환난에서의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한다. 우상은 참으로 헛되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참 경건이며 경건한 사람에게는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딤후 4:8).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벌거숭이산들에 강을, 골짜기들에 샘을, 메마른 광야에 못을 주실 것이며, 사막에 각종 나무들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는 만유를 회복시키실 것이다(행 3:21). 요한계시록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는 그가 회복시키실 새 세계를 소망해야 한다.